

언어발전소

2021.4
뉴스레터 vol.3

언어 관련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지원사업 소개

'성인 언어치료 세미나' 후기
<실어증>

인터뷰
<김유빈·박소현 인턴>



CONTENTS

목차 | 2021.4

03

제 41 회 장애인의 날

- 언어 관련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지원사업 소개

08

언어발전소 소식

- ' 성인 언어치료 ' 세미나 후기 < 실어증 >

12

인터뷰

- 김유빈 · 박소현 인턴

15

십자말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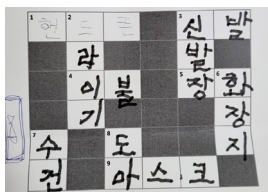
| 1호 뉴스레터 이벤트 선정작 |



컬러링 서*경 님



컬러링 고*진 님



십자말 풀이 안*익 님



십자말 풀이 서*남 님

언어 관련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지원사업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198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어 올해로 41회를 맞았네요. ‘장애인’ 이라고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지체 및 시각·청각장애인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뇌의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언어발전소를 이용하고 찾아주시는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여기에 해당 될텐데요.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는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 하는데 불편한 것을 넘어,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회와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끈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많은 언어장애 대상자들이 언어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언어발전소의 대상자·보호자분들은 언어장애와 관련된 판정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장애 진단기관에서 장애 유형 및 등급을 진단받는 경우 정부 및 여러 기관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언어와 관련된 장애 등급 판정기준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장애 위주로 살펴볼게요. (아래 표에 제시된 장애들로 인해 언어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그렇다면 **장애진단**은 어디서, 누구한테, 언제 받을까요?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등급판정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판정시기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언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출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2017. 4.1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 언어장애 관련 지원 사업

1) 정보통신 보조기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현시대에 걸맞게 디지털을 활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조기기의 **보급 대상**은 어떻게 되고, **지원 내역**과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 [정보통신보조기기 (at4u.or.kr)]를 참고해주세요.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보급 품목	의사소통 보조기기	발음 및 발성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 언어, 뇌병변, 지체, 자폐성 및 중복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기기
	언어훈련S/W	언어재활 프로그램으로 글자, 어휘, 문장, 상황 등을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영역에서 다양하게 연습하고, 발음기관 움직임 및 산출적 측면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특수 보조기기 (모니터/키보드/마우스)	지체/뇌병변장애로 인해 상하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중 움직임 및 기능적 사용이 가능한 신체부위를 활용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보조기기

*출처: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 (정보통신보조기기 (at4u.or.kr))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혹시 복지관 등의 공공기관 카페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계산원으로, 서빙 직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밖에도 회사의 사무보조 등 자립된 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재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 또는 일반노동 시장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하는 목적이 있다고 해요. 또한 단순히 취업기관과 연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능력에 따른 적격성 판단부터, 해당 직업의 적응훈련 및 적응 지원까지 책임지고 도와준다니,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 같네요!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진행과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사업 별 지원 대상과 내용, 조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vr.koddi.or.kr/>)'를 참고해주세요.

사업 주요 내용	카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설치 지원 및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의 전문 인프라를 통한 카페 운영
	직업재활 컨설팅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컨설팅모델 개발을 통해 컨설팅이 필요한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에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관역량강화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질 제고
	지역사회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직업재활 서비스 기관 간 상호교류 강화와 권역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신규서비스 창출과 정책적 모델 제시
진행 과정		접수-직업상담-직업평가-적격성결정-직업재활계획수립-직업적응 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원

* 출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vr.koddi.or.kr/>)

3) 전자바우처 ‘언어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언어재활 진행 시 소득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니, **치료비**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네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지금까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더불어 언어장애와 관련한 세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대상자/보호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구독자분들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의 생활과 재활치료를 위한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언어장애 대상자가 겪게 되는 신체적 어려움이나 **감정에 대한 지원과 지지**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내 주변에 언어장애 대상자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두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세요.** 또 대상자의 표현에 오류가 있고 말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스스로 노력해서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거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가 정답을 알려주고 모든 일을 대신 해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발전이 있을까요? 이렇듯 대상자가 스스로 표현하고 연습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세요. 물론 질문에 답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알맞은 단어를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어 표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대상자의 언어 구사능력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생각보다 재활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치료와 더불어 대상자의 재활 의지 및 보호자의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보호자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힘을 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대상자를 지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각 기관에서 매년 열리던 장애인의 날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었다고 해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제한된 요즘, 언어발전소가 다양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로 찾아갈게요! 다음 뉴스레터도 기대해주세요.

작성자 **김현아 언어재활사 & 매니저**

*해당 글은 지면 관계상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어발전소 블로그(<https://blog.naver.com/helpspeaking>)를 참고해주세요.

'성인 언어치료' 세미나 후기



지난 호 뉴스레터에선 언어발전소의 성인언어치료세미나 3기, 1주차 강연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참석하신 언어재활사 선생님들이 세미나가 종료될 때까지 적극적인 자세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채 참여해주신 덕분에 마지막 5주차 세미나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2주차 강연 내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실어증이란 무엇이고, 어떤 검사를 통해 판단하는 걸까?

2주차 세미나의 주제는 <실어증>이었습니다.

‘실어증’을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신 **박성중 선생님**은 현재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신 베테랑 언어치료사인데요. 본격적으로 2주차 강연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강연에서 소개해주신 실어증의 유형 및 평가, 치료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어증(Aphasia)**이란? 뇌손상(뇌경색, 뇌출혈, 외상) 및 뇌졸중으로 인해 언어 영역에 문제가 생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언어장애 증상을 말합니다. 언어재활사는 실어증 여부와 유형,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언어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실어증 검사도구는

①신경언어장애 선별검사(STAND), ②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PK-WAB-R), ③보스톤 이름대기 검사(K-BNT), ④대구 실어증 진단 검사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검사도구들을 통해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치매 등과 같이 후천적, 신경학적 원인으로 언어장애를 겪는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K-BNT)와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PK-WAB-R)란?

설명드린 검사 도구 중 2가지 검사도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사물의 이름을 맞히는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K-BNT)>는 ‘이름대기’ 항목만 구체적으로 검사 합니다.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하지 못하였을 때 의미적 단서와 음운적 단서를 제공하는 데 어떤 단서를 제공했을 때 많이 맞히는지 등을 통해 치료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검사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도구인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PK-WAB-R)>은 대상자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전반의 언어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실어증 유형을 구분하는데, 뇌손상 위치와 손상 수준에 따라 실어증 유형은 8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구분은 임상 환경에서 환자의 언어 증상 이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실어증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가 하나의 특정 증상만을 보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유형의 실어증 증상이 중복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회복됨에 따라 실어증 유형이 변화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식회사 언어발전소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도구
(K-BNT) - 성인용



PK-WAB - 성인용

| 실어증은 증상별로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K-WAB검사 기준)

구체적으로 실어증은 표현, 이해 영역에 모두 어려움을 겪는 '①전반 실어증(Global aphasia)', 표현과 이해 모두 어려움을 보이거나 다른 영역에 비해 따라말하기 수행을 비교적 양호하게 할 수 있는 증상의 '②혼합 연결피질 실어증(Mixed transcortical aphasia)', 발음장애를 동반하며 표현 영역보다 이해 영역이 양호한 '③브로카 실어증(Broca's aphasia)', 브로카 실어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따라말하기 수행이 양호한 '④연결피질 운동 실어증(Transcortical motor aphasia)', 이해 영역보다 표현 영역이 양호하여 억양, 운율, 표현은 유창하게 하지만 장황한 문장을 구사하게 되는 '⑤베르니케 실어증(Wernicke's aphasia)', 베르니케 실어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따라말하기 수행이 양호한 '⑥연결피질 감각 실어증(Transcortical sensory aphasia)', 표현과 이해 영역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따라말하기 수행이 어려운 '⑦전도 실어증(Conduction aphasia)', 앞선 실어증 유형들에 비해 이름대기 영역에만 특히 어려움을 보이는 '⑧명칭 실어증(Anomic aphasia)'으로 구분됩니다.

|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실어증 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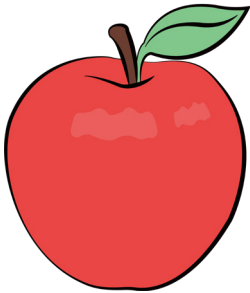
다음으로, 앞서 설명 드린 실어증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실어증 치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어증 치료는 대상자에게 다양한 언어 자극을 주어 회복을 돕고, 남은 언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촉진시킴으로써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목표로 적용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같은 유형의 실어증 대상자여도 어떤 치료법이 적절한지는 대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치료법을 적용해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지속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실어증 치료 방향입니다.

실어증 치료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치료방법을 세가지 정도 소개해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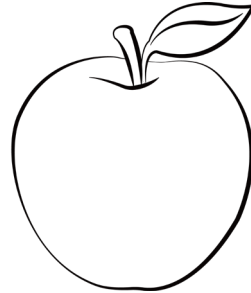
첫 번째, <①음소 자극법>입니다. 단어의 첫 음소를 제시해 줌으로써 발화를 자극하는 방법 인데요. 예를 들어 '휴지' 라는 발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어의 첫 음소 'ㅎ'을 제시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표현이 제한된 브로카 실어증 대상자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소('ㅎ') 수준이 아닌 음절 수준으로 '휴'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또, 음소('ㅎ')를 들려주고 의미를 설명해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를 풀 때나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쓰는 것'과 같이 설명 할 수 있습니다. 단어 연습을 할 땐 사랑, 배려, 기쁨과 같은 추상명사보다는 신발, 젓가락, 컴퓨터와 같이 구체 명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실어증 대상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단어 위주로 치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_ _ _ _ .

두 번째, <②문장 완결형 청각 자극법>입니다. 선행 문장을 들려주고 대상자에게 다음 문장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낮은 밝고, 밤은 _?' 과 같은 방식으로, 문장 끝을 비워두고 문장 끝을 채우게 하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큰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시처럼 반대 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거나, '가는 말이 고와야 _ _ _ _ .'처럼 익숙한 속담을 적용시키는 것이 실어증 대상자에게 주로 권고되곤 합니다.



실물에 가까운 이미지(친숙함)



실물의 형태를 선으로 표현한 이미지(덜 친숙함)

또 세 번째, <③시각적 자극법>입니다. 언어와 관련된 시각적 자료를 쉬운 순으로 제공하여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실물 > 그림 > 글자 순으로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는 그림보다 글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글자를 먼저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림은 사진 > 컬러그림 > 흑백그림의 순으로 실제 사물과 유사하게 그려진 그림 일 수록 이해하기 쉽고 실제 사물과 유사하지 않은 흑백 그림, 선 그림의 형태일 수록 이해하기 더 어렵습니다. 대상자가 수행을 잘 할 경우에는 선 그림을 활용하여 반복해서 지도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친숙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행을 잘 할 수록 덜 친숙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사과라도 처음에는 빨간색 사과 그림을 제시하고 수행력이 좋아졌을 때는 선으로만 된 사과 그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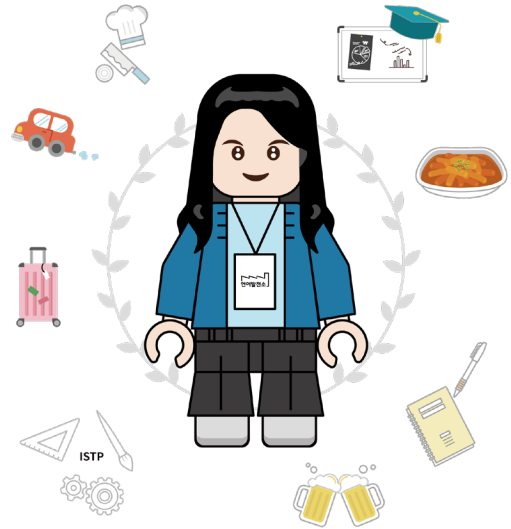
위와 같은 방법들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자극이 곧 언어적 자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어증 대상자의 발화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실어증 치료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대상자마다 어떤 치료법을 적용하면 적절할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언어발전소에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어발전소의 성인언어치료세미나 3기 2주차 내용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실어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어발전소로 문의주세요!

김유빈 · 박소현 인턴



유빈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 언어재활사 유빈입니다. 언어치료학을 전공하였고, 올해 2월에 갓 졸업하자마자 언어발전소에서 인턴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같은 학과 동기들이나 선배들의 경우 언어치료센터나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와 같이 언어치료와 관련된 기업에 입사한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렇다 보니 뇌손상 성인(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언어치료를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치료 대상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맡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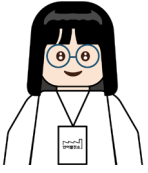
소현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 마케터 소현입니다. 올해 1월에 입사하였고, 현재 언어발전소의 홍보·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인턴 유빈님과 같은 직무 교육 캠프 동기로서, 같이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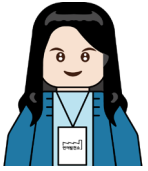
원래 저의 전공은 '경제학' 인데요, 전공과 별개로 평소에 창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짧지만 글을 작성하는 일을 좋아하다 보니 지금의 일들을 맡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두 인턴의 자세한 이야기는 현재 언어발전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인턴일기>로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업로드되며, 인턴 직원들의 소소한 이야기 및 언어발전소의 소식도 함께 담겨있어요. 인턴들의 성장 과정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은 분들은 언어발전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놀러 와주세요

Q. 언어발전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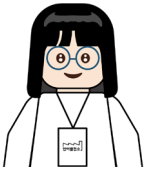


유빈 대상자분들이 언어발전소를 이용하기 전에 고객상담이 먼저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치료를 희망하는 대상자분의 의사소통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화상 상담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발전소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위해 언어치료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픈할 온라인 치료 자료실에 적용될 자료들이랍니다! 또한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분들의 애로사항을 틈틈히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발전소의 성인언어치료 세미나 진행 보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현 언어발전소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 이미지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여러 SNS 채널에 게시 하기도 하고, 언어발전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동영상을 편집하기도 해요. 2월 부터는 뉴스레터 제작에 참여하여 언어재활사, 대상자, 보호자 및 언어발전소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알찬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언어발전소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분들을 찾아 언어발전소를 소개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답니다!

Q. 출근하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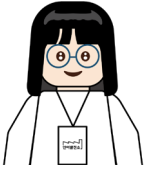
유빈 보통 멤버들 중 가장 일찍 출근하여 사무실 환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사무실 창문은 한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있어서 바깥이 잘 보이는데, 겨울에는 해가 일찍 저서 노을 풍경이 무척 예뻐던게 기억나요! 자리에 앉고 나면 주변 정돈 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먹으며, 화상 상담 신청 내역과 금일 언어 치료 수업 내역을 확인합니다. 또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 날 연락온 것이 있는지 살펴 보아요. 고객문의나 상담신청이 접수된 것이 있다면 1차적으로 전화응대를 하고, 대표님과 이사님께 관련 내용을 보고합니다. 인턴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할지 몰라 사수에게 많은 것을 물어봤어요. 결과적으로 일을 더디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데,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지금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늘어났어요.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여 고객들에게 완벽한(?) 응대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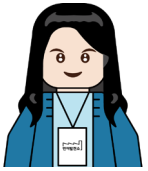
소현 언어발전소는 헤이그라운드라고하는 성수동 코워킹 스페이스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 크고 작은 기업이 함께 모여있는데, 이곳에 모인 각기 다른 기업의 직원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쁜 공용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공용 주방에 조식이 준비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출근 후 조식을 먹기도 하고 커피를 한 잔 내려 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업무 관련 메일을 확인하고, 업무 다이어리에 일일 업무를 정리합니다. 그 날 그 날 할 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데드라인에 맞추기 힘들고, 일을 진행할 때 우선 순위를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메일로 온 뉴스레터를 읽기도 합니다.

뉴스레터를 읽으면 다양한 소식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언어발전소 뉴스레터 제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 수, 금마다 발행되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SNS 고객 반응 확인, 뇌질환 환우 커뮤니티 모니터링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Q. 언어발전소의 조직문화는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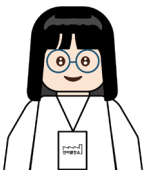


유빈 언어발전소는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8시~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하고,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업무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사람이 비교적 적게 몰리는 8시 30분에 출근해서 5시 30분에 퇴근하는 방식을 택했고, 30분 차이로 삶의 질이 상승해서 업무 집중도도 올라가고 워라밸 측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언어발전소의 멤버들끼리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조합하여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문화가 언어발전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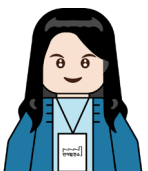


소현 보통의 일반 기업처럼 직급대로 서로를 부르는 것이 아닌 ‘-님’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이나 이사님과 소통을 할 때에도 예외없이 수평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호칭이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예의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난감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충분히 익숙해졌고, 이 호칭 문화 덕분에 사수분들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대신 자율적인 체계 안에서 서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언어발전소가 궁금한 분들(or 다음 인턴)에게 한마디해주세요!



유빈 언어재활학을 전공하고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은 흔치 않습니다. 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문서 작업부터 다양한 툴 사용 등 언어치료와 관련된 다른 직장(복지관, 사설센터 등)에서는 자주 해보지 못한 특별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다는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재활사 한명이 언어치료를 직접 하면 몇 명의 대상자를 도울 수 있지만, 언어재활사로서 언어치료 플랫폼 구축을 위해 힘쓴다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언어재활사분들에게도 특별한 경험 아닐까요?



소현 언어발전소의 목표는 기업 이익 창출에 만족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치료 대상자가 언어치료·재활을 통해 성공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세상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변화의 선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의 일원이 되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언어발전소에서 함께 일하는 경험을 추천드립니다.

십자말 풀이

십자말 풀이 단어를 모두 채운 후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구독자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해드립니다.

접수 마감 6.18(금) 낮12시

사진 보내는 곳 카카오톡 @언어발전소 언어치료

1.	2.			3.	
	4.			5.	6.
			10.		
7.	8.				
	9.				

가로 풀이

- 밀가루나 쌀가루 등에 설탕, 우유 따위를 섞어 굽거나 기름에 튀겨서 만든 음식. 주로 간식으로 먹는다.
- 집안 살림에 쓰는 기구. 주로 장롱·책장·탁자 따위와 같이 비교적 큰 제품을 이른다.
-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 세간, 도구, 기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신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
- 구두를 닦는 데 쓰는 솔.

세로 풀이

- 사람이 안장에 올라 타고 앉아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두 발로 페달을 교대로 밟아 두 다리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가게 된 탈 것.
- 수증기를 내어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는 전기 기구.
- 구두를 신을 때, 발이 잘 들어가도록 발 뒤축에 대는 작은 주걱모양으로 생긴 도구.
- 전류를 통하여 빛을 내는 유리알로 된 기구.
- 주로 해수욕장 따위에서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세워 두는 큰 양산.

이번에 선정된 십자말 풀이는 언어재활사 이*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문제를 조금 변형하였습니다.

We help you find your way of speaking

언어발전소는 1:1 화상 언어치료 플랫폼입니다.

비대면으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편안한 공간에서 수업받을 수 있습니다.

뇌손상으로 머릿속 단어 찾는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언어발전소 뉴스레터 2021년 4월

발행인 윤슬기

편집인 김혜정

글쓴이 김현아 김유빈 박소현

감수 윤사라 박소현

디자인 한지원

문의 전화 070-7525-5575

홈페이지 <https://helpspeaking.kr>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G412

